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모델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자본과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종철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국가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통합모형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자본의 개념화와 척도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자본의 사회통합에서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삶의 질 및 사회참여의도를 통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지역사회자본 및 주관적 삶의 질, 사회참여의도와 사회적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63부의 유효응답을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모형을 통해 변수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사회자본과 기업사회자본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기업사회자본과 공동체사회자본은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자본이 사회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정체성이 부분적으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지역사회자본, 인적사회자본, 기업사회자본, 공동체사회자본, 주관적 삶의 질, 사회참여의도, 사회적정체성

I. 서론

2020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3만 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2019년 250만명을 넘어섰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최근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4%대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국가의 사례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혼 급증, 외국인 범죄 급증, 테러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격화가 불러온 사회비용의 발생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국내상황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회 제반 영역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618)

**저자: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drpeter@ansan.ac.kr

· 투고일: 2021-03-18 · 수정일: 2021-06-05 · 게재확정일: 2021-06-23

노력하고 있다(김인영, 2013).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업 기회가 적은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 가치 창출인데 비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 시민참여 및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확대된 형태이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은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 단체 참여 등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사회적 신뢰의 구축이라는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변종임, 2004).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자본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통합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결과 신뢰를 통해 이뤄진다. 이처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회적자본이 갖는 다차원성, 가변성 및 모호성 등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집단의 집합 행동과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써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다. 즉,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써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자본은 첫째, 공동체로써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신뢰와 호혜성 등의 통합성,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연결망을 의미하는 연계성, 셋째,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나 지역사회 복지차원의 자원 응집성을 의미하는 완결성, 넷째,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성격인 시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Woolcock, 1998). 추가적으로 민간의 영역인 기업의 영향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 연구는 사회통합에서의 역할 기대로 인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의 영역인 행정복지서비스와 공동체의 역할을 다룬 연구는 다수 진행되는데 비해 사회적 기업의 사회통합의 효과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사회적자본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이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자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역할과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정책적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자본을 공공의 영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사회자본의 요소들을 탐색적으로 개발하고 측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지역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등의 인적사회자본과, 지역의 다문화와 연계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기업사회자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서비스 같은 공동체사회자본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이 다문화가정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인적사회자본, 기업사회자본, 공동체사회자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자본이 지역사회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학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지역사회적자본

사회적 자본은 20세기 중반 이후 신·고전 경제학파의 이론적 모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개인 및 집단이 사회문제

를 해결하고 사회적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자본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왔다. Coleman(1990)은 개인의 부족한 물적 및 인적 자본의 한계를 사회 네트워크에 속하면서 사회적자본이 형성되어 부족했던 인적, 물적 자원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형용(2010)은 사회적 관계에서 획득된 정보나 물적 자원 등을 통해 형성되어 사회적 빈곤과 건강 문제 및 삶의 질 등을 해결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활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지역을 기반으로 다룬 것이 지역사회자본이며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내 통합을 유발하는데 효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자본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도구적 활용, 상호간 도덕성의 구축, 및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지역사회 규범 등의 문화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Mattessich와 Monsey, 1997).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지역사회능력을 기반으로 설명되는데 Cottrell(1976)은 지역사회능력을 지역 내 사회적 관계를 견고히 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집단의사결정 기술 획득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송경재, 2013). 이러한 지역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Mattessich와 Monsey(1997)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의 신뢰, 상호호혜적 문화를 제시하였다.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지역사회자본을 시민교육, 지역사회 규범, 신뢰,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또한, 박덕병 등(2007)은 지역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을 협력,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정의와 구성 요들을 토대로 지역사회자본을 신뢰와 호혜성을 근거로 한 상호협력적 특성,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지역의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적 자본을 상호 협력적 속성을 포함한 인적 사회 자본, 지역사회문제의 해결능력을 포함한 기업 사회 자본, 지역기반의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지역기반 공동체 사회 자본으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1) 인적사회자본

인적 사회자본은 신뢰, 호혜성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Putnam, 1993). 첫째, 신뢰는 사회 구성원 내부에서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에 형성된 신뢰를 통해 공동체는 사회적 안정과 결속력 및 협력 증진으로 사회적 감시 및 통제 등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안우환, 2005). 또한 신뢰의 증진을 위한 호혜적 관계 강화 요구는 사회적 연결의 밀도가 높고 폐쇄된 사회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한상미, 2007). 따라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이면서 결과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호혜성 규범은 구성원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익을 추구할 때 법률 및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정도로 정의된다(Putnam, 1993). Putnam(1993)은 시민 참여의 연결 망에 의해 호혜성규범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다시말해, 호혜성 규범은 장기적으로 상호 신뢰가 견고하게 형성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규범인 동시에 자산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Coleman(1990)은 조직내 개인의 이기심 차단과 조직 목표를 위한 행동추구의 기제로 호혜성 규범이 작용하며 사회적 지지 및 명예 등의 보상을 통해 강화된다고 하였다. 셋째, 네트워크는 구성원이 사회적 관계 구축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위자들 간의 연결 형태로 지역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이다(한상미, 2007). 인적 사회자본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 간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공동체의 유지 및 사회 구조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구혜정, 2002).

(2) 기업사회자본

기업 사회자본은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해 지각하는 호혜성(reciprocity)이라 할 수 있다(Ekeh, 1974).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생산의 기초가 노동자본에서 물적자본, 금융자본을 통해 인적자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본의 개념은 사회 투자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기업 간 호혜적 계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 성과에 핵심적 요인으로 제시된다(원혜숙, 2014). Morales(2005)는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증대된 혜택이 고객 감정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 호혜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문달주와 임연석(2005)은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이 소비자에 의해 형성된 자아 이미지 동일시를 통해

호혜성에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이미지 동일시를 형성하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긍정 이미지로 변환되어 기업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신뢰를 다룬 연구로 Hosmer(1994)는 기업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윤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투자자들 및 지역사회와 신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Stump(1999)는 사회적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ivato 등, (2008)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해 자선적인 책임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은 소비자들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자본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으로써 기업사회자본을 다룬 연구로 Carroll(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사회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책임은 경제주체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기본적 책임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책임과 기업활동을 지속하고 주주 배당을 위한 이윤 극대화 책임을 말한다. 둘째, 법률적 책임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책임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률 등 규정된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윤리적 책임은 기업에 대한 선택적 책임으로 법률적 책임과 달리 강제성은 없으나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넷째, 자선적 책임은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 자발적 판단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책임활동 지각은 사회적자본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 공동체사회자본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마을같은 사회적 지역의 단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전문적인 집단이나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된 모임을 의미하기도 한다(정기환 등, 2006).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의 신뢰성 정도로 공동체 사회적 자본이 측정된다. 즉, 지역공동체를 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수준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은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구성원들의 교육 및 상담, 통·번역서비스, 취업역량강화지원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행정 복지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오윤자, 2014).

공동체에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Brady와 Cronin(2001)는 서비스품질 측정의 계층 구조를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 물리적 환경품질 등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유재 등(2005)은 서울시의 행정서비스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SSI(Seoul Service Index)모형을 제시하였다. SSI모형은 행정서비스품질의 프로세스관점에서 구성요소로 과정품질(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결과품질(욕구 충족성, 호감성), 서비스 환경품질(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사회품질(공공성, 안전성) 등 네 개의 차원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이유재 등, 2005). SSI는 서비스품질측정에 제한점이었던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불균형을 해결하여 균형있는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서비스환경 품질과 사회품질(소수자 보호, 시민 안전, 분배 평등)을 추가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행정 서비스품질을 지역의 공동체 사회적자본으로 정의하였다. 이유재 등(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문화가정의 공동체 사회적 자본으로 제공되는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과정, 결과, 서비스 환경이라는 세가지 서비스품질차원과 공정성 및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행정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렴성이나 공정성 등의 사회품질을 포함한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삶을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한 총체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이다.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 사회시스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여건 및 감정 등의 영향으로 결정되어 진다. 즉,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과 사회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주관적 삶의 질은 심리학 및 사회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행복감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박종민과 김서용(2002)은 행복이 감정적 차원의 삶의 질을 내포하고 삶의 만족은 평가적 차원의 삶의 질을 설명한다고 정의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관적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와 가치 체계에서 자신의 기대, 관심 및 목표에 대한 자각 정도로 정의하였다.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 건강상태, 지위 등의 사회적 요인을 통해 삶의 질을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 차원에서 논의한다. 반면,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을 다룬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 행복에 대한 지각 정도로 평가하여 삶의 질을 설명한다(서문기, 2015, 이운성과 조종현, 2019). 즉, 정신적 영역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포함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안전을 포함한 감정적인 영역으로 삶의 질을 다룬다. 이와 같이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객관적인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며(Hollar, 2003), 삶의 영역에서 효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의된다(Andrews와 Withey, 1976; Campbell 등, 1976). 이처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사회, 여가, 재정, 공동체 같은 다양한 생활의 범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향이론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Diener 등, 1999). 즉,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소득, 직업,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 사회관계적 요인(신뢰, 참여, 네트워크), 정서적 요인(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 환경적 요인(주거환경, 보건환경, 안전 등), 정부제도적 요인(거버넌스 형태, 정부정책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지는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특징을 갖는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있는데 매년 국가별 교육수준과 평균수명 및 국민소득 등으로 국가별 선진화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HDI는 삶의 질을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측정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는 주거환경, 소득수준, 일자리, 공동체 활동 정도, 교육 수준, 환경 상태, 건강 상태, 치안 수준 등 개별 국가 국민의 생활 상태를 11개 영역, 24개의 지표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의 삶의 질 지수(QLI: Quality of Life Index)는 기대수명, 이혼율, 실업률, 성차별, 커뮤니티 생활, GDP 수준, 정치 및 시민 자유 지수, 정치 안정 및 치안 등급 등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Frey와 Stutzer, 200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을 사회적 환경과 정신적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느끼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3 사회참여의도

공동체 의식 즉, 사회구성원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과 자신의 필요를 노력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함께 하는 구성원들과 시간 등을 공유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 등이다(McMillan과 Chavis, 1986). 공동체 의식이 드러나는 사회적 행위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라 할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는 사회자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부터 주로 정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소통이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통해 다뤄져 왔다(Creighton, 2005). 즉, 참여의도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실현하는 행위이며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참여는 실질적, 형식적, 관습적,

제도적, 합법적, 적극적, 건설적인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Scaff(1975)는 참여를 사회적 행위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회적 권력의 획득을 위한 의도인 도구적 참여와 공공 복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호혜적 참여에 의미를 두는 상호적 참여로 구분된다. 또한 이승종과 김혜정(2015)은 시민 참여행위를 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책참여(행정 경험)로 구분하였다.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 둘째, 정치효능감, 정당일체감, 정치성향 등 정치적 요인, 셋째,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 넷째, 신뢰, 생활만족도, 행복 등 심리적 요인, 다섯째, 정당 및 시민단체 활동, 종교가입여부와 종교활동, 친목단체활동 등 조직적 요인, 여섯째, 규제 및 법규정 등 제도적 요인 등이 있다(곽현근, 2007; 김대욱과 이승종, 2008; Yang과 Callahan, 2007). 특히 선행연구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의도에 대한 사회경제 모델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적 유리함으로 인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는 정부정책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이익이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Verba와 Nie, 1972).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자본이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삶의 질이라는 매개변인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자본이 사회참여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자본 자체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자본을 통해 주관적 삶의 질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주관적 삶의 질이 다문화구성원들의 사회적 공동체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및 정치적 참여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즉, 주관적 삶의 질이 지역사회자본이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자본이 증가만으로는 다문화구성원들이 사회적 참여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사회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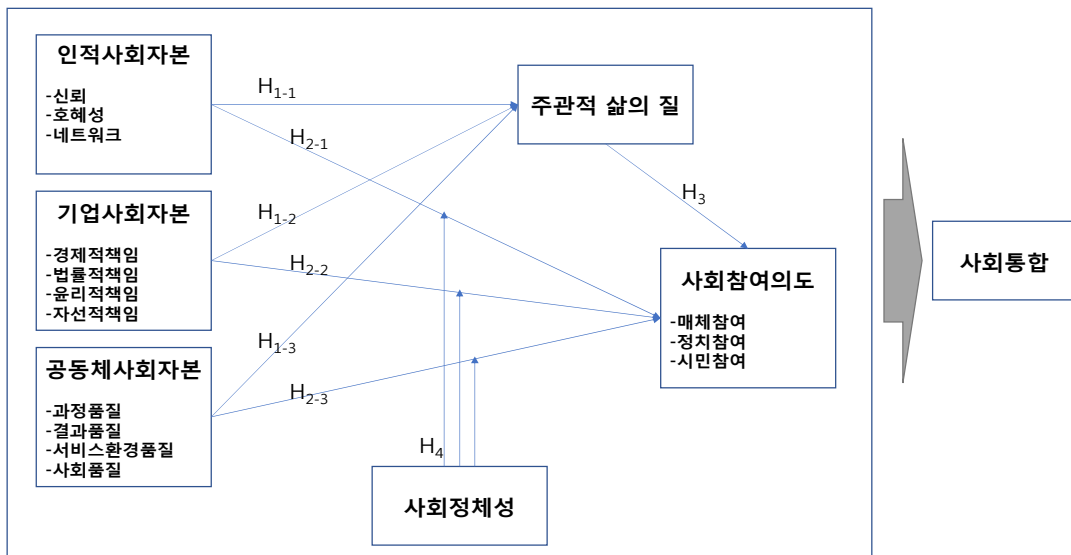
사회정체성이론은 1970년대 Taifel과 Turner에 의해 제시되었다. 사회정체성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과 상대방 또는 사물에 대해 파악할 때 각각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체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다. 이에 사회정체성 이론은 분류화, 정형화, 비교 등 세가지 핵심 개념을 근거로 설명된다. 첫째, 분류화는 사람들이 사물의 이해를 위해서 비슷한 사물끼리 분류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형화는 사람들이 집단의 구분을 자기가 속한 집단과 속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스스로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비교는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 유사한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긍정 또는 부정적 자아상을 획득해 나간다는 사회적 비교를 의미한다(Kemper와 Collins, 1990). 즉, 사람들은 인물이나 사물 등의 대상을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소속된 일부 구성원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 및 문화적 가치와 비교하여 대상의 사회적인 역할을 규정해 간다는 것이다(Britt와 Heis, 2000, 조종현, 2018). 사회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 중요할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사회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안정적으로 공유된 사회정체성이 사회구성원들의 연계를 견고하게 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제안하고 있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면 자신들을 보다 타인들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며, 사회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Mackie 등, 1992).

이와같은 사회정체성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을 근거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 즉, 국가사회 및 계층적과 직업적 지위, 그리고 가정 내 역할 등과 관련하여 스스로 역할에 대한 규명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즉,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지각을 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자본을 공공의 영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첫째,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사회자본의 요소들을 탐색적으로 개발하고 측정하여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인적사회자본, 기업사회자본, 공동체사회자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자본이 지역사회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지역사회자본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삶의 질은 복지수준 및 일상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도 혹은 행복감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이형실, 2000).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요인은 일반적인 개인특성(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이나 신뢰, 참여 등의 주관적 요인들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양한 대상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Pollack과 von dem Knesesbeck(2004)은 미국과 독일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타인 신뢰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Poortinga(2006)는 유럽의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를 근거로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Helliwell과 Putnam(2004)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으며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인 개인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Morales(2005)는 기업을 기반하는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형성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호혜성이 지각된 편익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긍정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지역 사회자본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추론해보면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을 담아내는 집단 자산으로서 지역사회자본은 공동체의 정체성, 사회적 연결망, 신뢰 등으로 구성되며 이로인해 지역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지역공동체간에 사회적 자본의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사회공동체와 연결과 신뢰 및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수준의 평가와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 H 1: 지역 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1-1: 인적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1-2: 기업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1-3: 공동체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사회자본과 사회참여의도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사회참여의 유형에 대해 Conway(1985)는 특정정당을 위해 일하거나 투표 등의 활동을 정치참여로 보았으며 Verba와 Nie(1972)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사회참여활동이라고 하였다. 김대욱과 이승종(2008)은 매체의 사용과 뉴스에 대한 관심 또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보았다. Yang과 Callahan(2007)는 복지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인적, 집단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즉,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와 더불어 빈곤자를 지원하거나 NGO를 위한 모금이나 환경단체에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인적사회자본이 형성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주민상호간 또는 주민과 지역복지 기관 간에 발생하는 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Putnam(2000)은 시민 참여 네트워크는 시민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신뢰의 강화는 사회생활의 마찰을 제거하기 위한 상호부조의 참여로 이끌어진다고 주장하였다. Putnam(1993) 역시 호혜성의 규범은 시민참여 네트워크에 의해 증진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업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미지의 제고로 인한 시민의 참여 역시 앞서 소개하였던 기업과의 호혜성은 고객의 이미지 동일시를 통해 구매의향, 즉 참여의사가 형성되고(Morales, 2005), 기업의 신뢰가 커지면서 직원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Hess 등, 2002). 끝으로 공동체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로부터 조직의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의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지니고 있는 서비스 조직의 이미지가 그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서 이용의향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복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사용자들이 서비스 과정에 접촉할 때, 그들의 편견이나 선입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느낌이 서비스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뢰감 그리고 의사소통이 조성되어 바람직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 H 2: 지역 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1: 인적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2: 기업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3: 공동체사회자본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layton과 Chubon(1994)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며 이는 다시 자신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한다고 하였다(Hayes,

2005). Sheppard-Jone 등(2003)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다고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향상은 사회참여의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참여의 동기요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고 있다(류시문, 2004; 김봉선, 2007, 이용선, 2019). 이처럼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들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한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에도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참여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 3: 다문화가정의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사회자본과 사회참여의도 간에 사회정체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정체성은 공동체 가입을 위한 개념에서 접근하여 집단의 행위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Tajfel과 Turner(1986)는 정체성이 집단소속감의 개념으로 소속된 집단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Dholokia 등(2004)은 구성원이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타 집단의 가치와 비교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을 사회 공동체와 개인이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영향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정체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사회참여의도에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개념을 연계할 유효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 즉 인지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정체성이 형성되어 집단 구성원에 대한 규범과 협동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며, 감정적 차원에서 새로운 공동체 집단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용이해지며 평가적 차원에서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신뢰가 낮은 사람들보다 소속집단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은 지역사회자본과 사회참여의도 간에 유의한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 4: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체성에 따라 지역사회자본이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다.

3.3 측정항목

본 연구는 지역사회자본과 주관적 삶의 질, 사회참여의도 및 사회정체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과 선행연구는 다음의 <표 1>와 같다. 각 변수에 대한 문항은 Likert's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동의한다'로 척도화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측정항목 및 선행연구

	문항	선행연구
인적사회 자본 (HSC)	업무를 위한 공동체 활동 열의 참여(HSC1), 업무의 공동체에서 연락하는 사람 존재(HSC2), 공동체내 관계형성 노력 정도(HSC3), 관계형성의 적극성 정도(HSC4), 공동체 이익에 대한 우선 정도(HSC5), 도움에 대한 보답의 타인 제공 정도(HSC6), 도움의 제공에 대한 타인 도움 기대 정도(HSC7), 도움에 대한 보답 노력 정도(HSC8), 지역내 동료들과 삶에 대한 대화의 진실성 정도(HSC9), 지역내 동료들과 삶에 대한 대화의 진실성 정도(HSC10), 관계맺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 노력 정도(HSC11), 타인의 열정적인 공동체 참여 인지 정도(HSC12), 사회적 가치 중요성 인식하는 타인이 많다는 인지 정도(HSC13)	Putnam(1993), 구혜정(2002), 한상미(2007),

기업사회 자본 (FSC)	사회적 기업의 이익극대화 노력정도(FSC1), 사회적기업의 합리적 가격서비스 제공 노력정도 (FSC2),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사업지각 정도(FSC3), 경영활동의 규정 준수 여부(FSC4), 소비자보호 법 준수 여부(FSC5), 공정거래와 법 준수여부(FSC6), 윤리적 기업경영 실천 여부 (FSC7), 임직원에게 대한 윤리교육 실천 여부(FSC8),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규범 준수 여부 (FSC9), 교육문화예술지원 공익사업 여부(FSC10), 장애인 불우이웃 등 사회봉사활동 여부 (FSC11), 환경보호 활동 등 사회문제해결 여부(FSC12), 수익일부의 사회 환원여부(FSC13)	Morales(2005) Pivato 등(2008) 이유재와 라선애(2002) 문달주와 임연석(2005)
공동체사회 자본 (CSC)	다문화복지서비스제공으로 해결욕구 충족(CSC1), 다문화 복지서비스의 만족(CSC2), 복지서비스 기대대비 충족여부(CSC3), 서비스 수혜후 담당자 감사 표현 여부(CSC4), 서비스 담당자의 이용자 욕구 이해 정도(CSC5), 서비스 담당자의 이용자 친근 정도(CSC6), 서비스 담당자의 친절한 태도 정도(CSC7),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지식 정도(CSC8),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정확성 정도(CSC9), 서비스 제공기관의 청결 정도(CSC10), 서비스 이용절차의 편리성 정도 (CSC11), 서비스 담당자 대면 용이정도(CSC12), 서비스 담당자의 요구 대응 적극성 정도 (CSC13), 서비스 담당자 복지서비스 제공의지정도(CSC14), 서비스 담당자의 권리 이익을 위한 노력 정도(CSC15), 서비스 담당자의 보람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도(CSC16),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지원정도(CSC17), 서비스 담당자의 불이익 보호 노력 정도(CSC18)	Brady와 Cronin(2001), 이유재 등(2005), 안희남(2010)
주관적삶 질(SQL)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에 대한 달성 정도(SQL1),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정도(SQL2), 현재 행복의 미래 지속 기대 정도(SQL3), 과거 삶에 대한 만족 정도(SQL4),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SQL5)	Helliwell과 Putnam(2005) 이형실(2000),김봉선(2007)
사회참여 의도(SPI)	주민 모임 참여 의도(SPI1), 봉사활동 참여의도(SPI2), 취미 모임 참여의도(SPI3), 지역 집회 참여의도(SPI4), 서명운동 참여의도(SPI5), 공청회 참여의도(SPI6), 뉴스 댓글 개진 의도(SPI7), 매체 참여 의견 공유 의도(SPI8), 인터넷 토론방 참여의도(SPI9)	Zukin 등(2006) Putnam(2000) Morales(2005)
사회정체 성(SI)	나의 일에 대한 존중(SI1), 나의 사회 기여 의미 부여(SI2), 나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SI3), 사회 일원이라는 가치 인정(SI4), 구성원이라는 자신감 정도(SI5), 사회와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기쁨(SI6), 사회 일원이라는 자부심 정도(SI7), 사회에 대한 긍정적 구전 정도(SI8)	Dholokia 등(2004) Tajfel과 Turner(1984)

IV. 실증분석

4.1 자료의 수집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자본을 공공의 영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에 회신한 응답중 불성실한 3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363부를 연구를 위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출신국가, 거주기간 등에 대한 인구통계적 분포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응답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	비율	항목	빈도	비율		
거주기간	4년이하	180	49.6	출신국가	중국(한국계)	124	34.2
	8년이하	170	46.8		중국	84	23.1
	9년이상	13	3.6		러시아(한국계)	46	12.7
합계	363	100.0	베트남		35	9.6	
학력	중졸이하	122	33.6		기타	74	20.3
	고졸	182	50.1	합계	363	100.0	
	대졸	59	16.3	성별	남성	128	35.3
합계	363	100.0	여성		235	64.7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69	19.0	합계	363	100.0	
	200만원이하	106	29.2	연령	29세이하	227	62.5
	300만원이하	102	28.1		30세-39세	78	21.5
	400만원이하	65	17.9		40~49세	47	12.9
	500만원이하	21	5.8		50세이상	11	3.0
합계	363	100.0	합계	363	100.0		

4.2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가설의 검정을 위해 응답된 설문지의 측정문항과 응답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타당성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배리맥스 직각회전방식을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분석을 수행하여 크론바흐알파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값을 살펴보면 모든 측정문항에서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value)이 0.5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요인분석 이후 요인으로 묶인 측정항목들 간에 신뢰성을 분석하였는데 각 측정항목들의 내적일관성계수인 크론바흐알파 값이 0.6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결과

요인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아이겐값	누적분산비율	크론바흐알파
인적사회자본 (HSC)	신뢰	HSC9	.842	.139	-.027		2.823	21.712	0.799
		HSC10	.821	-.013	.173				
		HSC11	.798	.177	-.087				
		HSC12	.691	.160	.316				
		HSC13	.451	.263	.400				
	네트워크	HSC3	.108	.845	.064		2.763	42.963	0.853
		HSC4	.109	.811	.128				
		HSC2	.056	.724	.328				
		HSC1	.178	.558	.331				
		HSC5	.204	.500	.316				
	호혜성	HSC7	.033	.194	.879		2.709	63.802	0.808
		HSC8	.115	.208	.849				
HSC6		.089	.280	.761					
기업사회자본 (FSC)	사회적책임	FSC7	.819	.030	.130		3.795	29.193	0.886
		FSC8	.814	.131	.134				
		FSC11	.705	.265	.121				
		FSC12	.660	.245	.290				
		FSC9	.646	.311	.329				
		FSC13	.594	.457	.260				
		FSC10	.561	.353	.352				
	경제적책임	FSC1	.108	.838	.167		2.565	48.926	0.803
		FSC2	.216	.763	.278				
		FSC3	.338	.746	.121				
	법률적책임	FSC4	.021	.328	.811		2.396	67.358	0.808
		FSC5	.370	.148	.799				
		FSC6	.364	.127	.739				
공동체사회자본 (CSC)	사회품질	CSC17	.900	.095	-.166	-.037	3.172	17.621	0.901
		CSC15	.877	-.050	-.045	.040			
		CSC18	.864	.128	-.027	.090			
		CSC16	.850	-.020	.018	-.128			
	서비스환경품질	CSC13	.133	.795	.160	-.002	3.133	35.025	0.840
		CSC11	-.087	.782	.054	.215			
		CSC14	.107	.782	.229	.058			
		CSC10	-.021	.717	.006	.205			
		CSC12	.040	.698	.257	.182			
	과정품질	CSC6	-.126	.037	.845	.124	3.036	51.889	0.796
		CSC8	-.094	.154	.782	.104			
		CSC5	-.098	.137	.742	.104			
		CSC9	.038	.150	.598	.271			
		CSC7	.210	.246	.493	.361			

	결과품질	CSC2	-.044	.119	.129	.862			
		CSC1	.008	.199	.129	.802	2.517	65.871	0.804
		CSC3	.005	.134	.384	.704			
		CSC4	-.070	.218	.449	.492			
	삶의 질(SQL)	SQL4	.850				3.558	71.161	0.898
		SQL2	.849						
		SQL3	.848						
		SQL5	.836						
		SQL1	.835						
사회참여의도(SPI)	정치참여	SPI5	.920	.073	.078		2.574	28.603	0.861
		SPI6	.910	.144	.159				
		SPI4	.747	.114	.174				
	매체참여	SPI7	-.004	.893	.065		2.156	52.558	0.798
		SPI8	.113	.893	.143				
		SPI9	.404	.654	.134				
	시민참여	SPI3	.051	.002	.827		1.720	71.665	0.645
		SPI2	.151	.158	.807				
		SPI1	.376	.261	.529				
	사회정체성(SI)	SI3	.877				2.710	67.747	0.838
		SI4	.839						
		SI2	.807						
		SI1	.765						

<표 4>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분석

	인적사회자본			기업사회자본				공동체사회자본				삶의 질	사회참여의도		
	네트웍	호혜성	신뢰	경제	법률	윤리	자선	결과	과정	환경	사회	삶의 질	시민	정치	매체
네트웍	1														
호혜성	.530**	1													
신뢰	.404**	.319**	1												
경제	.268**	.349**	.371**	1											
법률	.202**	.358**	.356**	.510**	1										
윤리	.200**	.317**	.384**	.474**	.507**	1									
자선	.263**	.423**	.338**	.567**	.579**	.638**	1								
결과	.306**	.282**	.457**	.451**	.378**	.295**	.306**	1							
과정	.152**	.219**	.352**	.506**	.498**	.366**	.328**	.568**	1						
환경	.286**	.188**	.171**	.350**	.244**	.199**	.260**	.463**	.444**	1					
사회	.022	-.041	-.045	-.055	-.064	-.065	-.070	-.046	-.067	.035	1				
삶의 질	.571**	.509**	.441**	.438**	.303**	.322**	.468**	.345**	.133**	.281**	.045	1			
시민	.238**	.232**	.384**	.340**	.384**	.330**	.439**	.620**	.503**	.404**	.002	.327**	1		
정치	.133**	.262**	.217**	.232**	.348**	.286**	.386**	.241**	.402**	.197**	-.153**	.080	.402**	1	
매체	.326**	.479**	.405**	.473**	.587**	.534**	.691**	.296**	.283**	.195**	-.012	.485**	.350**	.330**	1

** 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4.3 확인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측정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인적사회자본, 기업사회자본, 공동체사회자본 및 사회참여의도에 대해서는 측정변수의 하위차원이 너무 많으며 구조모형을 통해 변수간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에 맞춰 2차 확인요인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품질차원과 SQL2 문항은 제거될 때 모형적합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측정 항목의 확인요인 분석결과

	Estimate	S.E.	C.R.	모형적합도
신뢰	0.89	0.072	12.412	$\chi^2=514.701$, d.f. =94, CMIN/DF =5.467, p=0.000, GFI=0.849, AGFI=0.781, NFI=0.819, CFI=0.845, IFI= 0.847, TLI=0.802, RMR=0.050, PRATIO=0.783
호혜성	1			
네트워크	0.855	0.081	10.505	
사회적책임	1			
법률책임	0.774	0.053	14.621	
경제책임	0.877	0.065	13.497	
서비스환경	0.716	0.095	7.51	
과정품질	0.863	0.094	9.142	
결과품질	1			
SQL5	0.934	0.057	16.372	
SQL3	1			
SQL1	0.983	0.064	15.294	
SQL4	0.997	0.056	17.822	
매체	1			
정치	0.603	0.074	8.122	
시민	0.742	0.068	10.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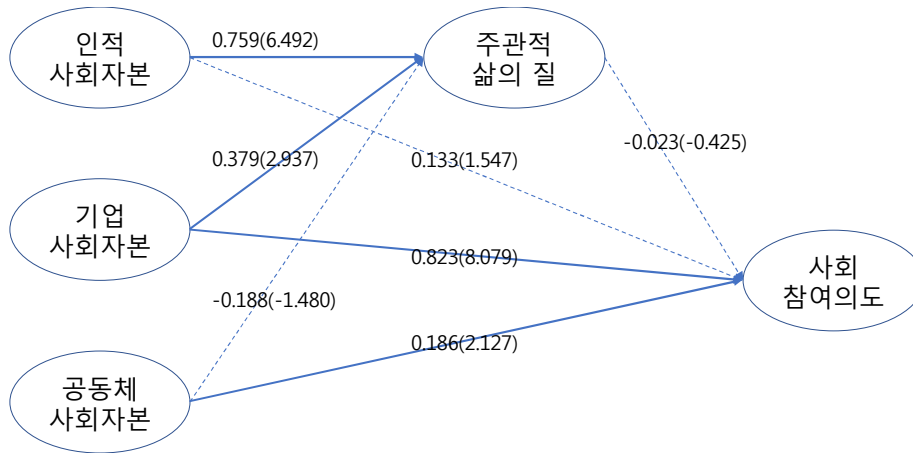
4.4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검정을 위해 공분산 구조모형을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통계량값은 $\chi^2=514.701$, d.f.=94, CMIN/DF=5.467, p=0.000, GFI=0.849, AGFI=0.781, NFI=0.819, CFI=0.845, IFI= 0.847, TLI=0.802, RMR=0.050, PRATIO=0.783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검증하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 대부분의 적합도 값이 통계적 허용치 이내로 적합하게 나타나 연구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경로간 평가값과 기각비 및 유의확률 등을 근거로 가설에 대한 채택여부를 다음 <그림 3>, <표 15>과 같이 판정하였다.

<표 6>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Estimate	S.E.	C.R.	P	채택여부
인적사회자본 ⇒ 주관적 삶의 질	0.759	0.117	6.492	***	채택
기업사회자본 ⇒ 주관적 삶의 질	0.379	0.129	2.937	0.003	채택
공동체사회자본 ⇒ 주관적 삶의 질	-0.188	0.127	-1.48	0.139	기각
인적사회자본 ⇒ 사회참여의도	0.133	0.086	1.547	0.122	기각
기업사회자본 ⇒ 사회참여의도	0.823	0.102	8.079	***	채택
공동체사회자본 ⇒ 사회참여의도	0.186	0.088	2.127	0.033	채택
주관적삶의질 ⇒ 사회참여의도	-0.023	0.053	-0.425	0.671	기각

** p값은 0.05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4.5 경로간 차이가설 검정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사회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의 대응모수비교분석(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을 하였다. 4개의 사회적 정체성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5.4229)을 기준으로 사회적정체성 지각이 높게 나타난 다문화가정 구성원 집단(n=232)과 낮게 나타난 구성원 집단(n=131)을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집단간 경로계수 값의 통계적 차이 검정은 모수간 기각비 차이(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정체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가설	사회적 정체성	경로계수	표준오차	기각비	p	z값
인적사회자본 ⇒ 사회참여의도	높은 집단	0.079	0.164	0.483	0.629	0.262
	낮은 집단	0.126	0.070	1.794	0.073	
기업사회자본 ⇒ 사회참여의도	높은 집단	2.037	0.624	3.264	0.001**	-3.234
	낮은 집단	-0.113	0.230	-0.494	0.622	
공동체사회자본 ⇒ 사회참여의도	높은 집단	-0.577	0.237	-2.433	0.015**	3.811
	낮은 집단	1.181	0.396	2.985	0.003**	

** 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4.6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정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문화구성원의 지역사회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인적사회자본이 Estimate= 0.759(C.R.=6.492), 기업사회자본이 Estimate= 0.379(C.R.=2.937)으로 나타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 사회자본은 Estimate= -0.188(C.R.=-1.480)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구성원이 지각하는 인적사회자본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며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법적, 사회적

책임등에 의해서도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서비스 등은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사회참여 하거나 이를 통해 인적 관계를 넓혀가는 다문화구성원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둘째, 사회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자본은 기업사회자본 Estimate= 0.823(C.R.=8.079)과 공동체사회자본 Estimate= 0.186(C.R.=2.127)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의 경제적, 법적, 사회적 책임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참여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으로써의 참여의도, 매체 및 정치적 참여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2와 가설 2-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셋째, 다문화구성원들의 지역사회자본을 통한 주관적 삶의 질이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주관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사회참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관적 삶의 질이나 사회참여의도 모두 지역내 다문화구성원의 사회통합을 위해 의미있는 향상을 나타내는 결과로 사회적기업의 양성을 통해 다문화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끝으로 다문화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자본이 지역사회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정체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정결과 기업사회자본 및 공동체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체성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정체성이 높은 집단(Estimate= 2.037, C.R.=3.264)은 사회정체성이 낮은 집단(Estimate= -0.113, C.R.=-0.494)에 비해 기업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인해 사회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정체성이 낮은 집단(Estimate= 1.181, C.R.=2.985)은 사회정체성이 높은 집단(Estimate= -0.577, C.R.=-2.433)보다 다문화행정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공동체사회자본을 통해 사회참여의도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정체성이 높게 형성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경우 사회적기업 등의 적극적인 활동참여로 인해 사회참여가 높게 발생되며 사회정체성이 낮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경우 행정복지서비스 등의 소극적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참여의도를 형성한다는 결과로 분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자본을 공공의 영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기존의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등 개인간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지각과 행정복지서비스품질을 추가하여 효과성을 검정하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즉, 기존의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점의 보고서 및 연구들은 개인간 신뢰관계의 형성 등 인적사회자본의 관점에만 국한되었던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민간 기업의 영역인 기업의 역할과 행정서비스의 역할을 포괄한 사회통합모델의 근거로 지역사회자본의 개념화를 하였다. 이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집단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들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자본의 역할을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행복감으로 설명가능한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사회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행복감이나 지역사회와의 접촉의 증대가 요구되어지는데 지역사회자본을 통한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도와와의 관계를 검정하여 전체적인 영향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참여에 지역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개인의 인지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회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자본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에 따라 사회참여의도가 달라짐을 제시하여 사회통합모델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 정도에 따라 사회참여의도가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자본의 효과성 있는 활용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복지행정서비스의 관계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인적사회자본, 기업사회자본, 공동체사회자본의 효과적 역할을 위해 개인적 차원의 동기 및 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볼 때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시사점과 더불어 연구결과를 근거로한 정책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자본에서 기업사회자본의 역할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다문화가정 등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정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참여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질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자본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아울러 복지행정서비스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제도적으로 사회로 이끌어내어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운영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하여 이질적인 사회에서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강화한다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이 지역사회자본과 사회참여의도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신국가별 공동체 활동의 지원을 통해 보다 자신감 있게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늘려나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의도의 향상과 더 나아가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더불어 이질적 사회에서 자국민들끼리의 공동체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출신국가별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한 경제적 활동의 목적뿐만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써의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운영효율성을 위한 지원제도 등이 마련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표본을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제한을 두었다. 지역적 특성과 도시 및 농촌의 차이 등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별 연구가 추후 연구를 통해 이뤄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자본의 효과성을 주관적 삶의 질 및 사회참여의도를 통한 사회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는데 국내 다문화정책의 효과성 측정 등 다문화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문화 사회통합에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이 제공되어질 것이다. 즉,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각 차이와 지역사회 통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 곽현근(2007),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 회지*, 19(1), 145-170.
- 김대욱,이승종(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 김봉선(2007), “장애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8, 5-28.

- 김인영(2013), “정부 사회통합 위원회의 한계와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방향”, *정치정보연구*, 16(2), 145-170.
- 김형용(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44(2), 59-92.
- 구혜정(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류시문(2004),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1, 100-129.
- 문달주, 임언석(2005), “기업 브랜드의 메세나 활동에 대한 소비자 태도 연구: 동일시 이론의 적용”, *광고학연구*, 16(3), 83-117.
- 박희봉, 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75-495
- 박덕병, 윤유식, 이민수(2007), “농촌관광마을 지역주민의 사회자본 결정요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관광레저연구*, 19(4), 27-46.
- 박종민, 김서용(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 141-164.
- 변종임(2004), “사회적자본과 참여문화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 *한국교육*, 31(2), 321-344.
- 서문기(2018), “부패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7(2), 3-31.
- 송경재(2013), “지구화 시대의 지역 사회적 자본: 부산과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41, 115-151.
- 안희남(2000), “행정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민의 행정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0(1), 17-18.
- 오윤자(2014),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현황 탐색-D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4, 221-222.
- 원혜숙(2014),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이승종, 김혜정(2015),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용선(2019), “윤리적판단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벤처혁신연구*, 2(2), 65-78.
- 이유재, 라선아, 이청림(2005), “공공 서비스품질 모형의 개발과 적용”, *한국마케팅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
- 이유재, 라선아(2002), “브랜드 퍼스널리티-브랜드 동일시-브랜드 자산 모형: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마케팅연구*, 17, 1-33.
- 이운성, 조종현(2019),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이 노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혁신연구*, 2(1), 57-79.
- 이형실(2000),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직업스트레스, 배우자 지원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47-55.
- 정기환, 심재만, 최경은(2006),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농촌경제연구원. .
- 조종현(2018),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후 삶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전, 참여 후 분석을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1(2), 141-156.
- 한상미(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행정안전부(202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 Ahn, H. S., I. K. Sa, Y. M. Baek and D. W. Lee(2011), “A Development of Intelligent Service Robot System for Store Management in Unmanned Environment”,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17(6), 539-545.
- Lazarus, R. S. and R. S. Lazarus(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Andrews, F. M., and S. B. Withey(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Brady, M. K., and J. Jr. Cronin(2001), "Some New Thoughts on Conceptualizing Perceived Service Quality: A Hierarchical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65(3), 34-49.
- Britt, L. and D. Heise(2000), "From Shame to Pride in Identity Politics," Sheldon Stryker, Timothy Owens, and Robert White eds. *Self,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200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mpbell, A., P. E. Converse and W. L. Rodgers(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rroll, A(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 39-48.
- Clayton. K. S. and R. A. Chubon(199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Long-term Spinal Cord Injured Person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5(June), 633-638.
- Coleman, J.(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Belknap.
- Conway, M. M.(2004),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7(1), 60-61.
- Cottrell, L. S.(1976), "The Competent Community," In B. H. Kaplan, R. H. Wilson, & A. H. Leighton (Eds.), *Further Explorations in Social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 Creighton, J. L.(2005),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John Wiley & Sons, 2005.
- Diener, E. and E. K. Suh(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 189-216.
- Dholakia, U. M., R. P. Bagozzi, and L. R. Klein Pearo(2004) "A Social Influence Model of Consumer Participation in Network- and Small-Group-based Virtual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1(3), 241-263.
- Ekeh, P. P.(1974), *Social Exchange Theory: The Two Traditions*, Cambridge, MA: Harvar Business Review.
- Frey, B. S. and A. Stutzer(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Hayes, S. C.(2005), "Eleven Rules for a More Successful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 1055-1060.
- Helliwell, J. F. and R. D. Putnam(2005),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In F. A. Huppert, N. Baylis, and B. Keverne, *The Science of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 Hess, D. N., N. Rogovsky and T. W. Dunfee(2002), "The Next Wave of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Corporate Social Initiativ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4(2),110-125.
- Hollar, D.(2003), "A Holistic Theoretical Model for Examining Welfare Reform: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90-104.
- Kemper, T. D., and R. Collins(1990), "Dimensions of Microinter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1), pp.32-68.
- Mackie D., M. C. C. Gastardo-Conaco and J. J. Skelly(1992), "Knowledge of the Advocated Position and the Processing of In-Group and Out-Group Persuasive Messa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2), 145-151.

- Mattessich, P. W., and B. R. Monsey(1997),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Saint Paul, MN: Fieldstone Alliance.
- McMillan, D., and D. Chavis(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orales, A. C.(2005), "Giving Firm an "E" for Efforts: Consumer Responses to High-Effort Firm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March), 806-812.
- Pivato, S., N. Missani and A. Tencati(2008),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Consumer Trust,"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17(1), 3-12.
- Pollack, C. E. and O. von dem Knesebeck(2004), "Social Capital and Health among the Aged: Comparis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ealth & Place*, 10, 383-391.
- Poortinga, W.(2006), "Social Capital: An Individual or Collective Resource for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62(2), 292-302.
-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 Scaff, L. A(1975), "Two Concep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8(3), 447-462.
- Sheppard-Jones, K(2003), *Quality of Life Dimension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 Stump, S.(1999), "Attracting Social Investors, Appeasing Shareholders," *Investor Relations Business*, 4(January), 8-9.
- Tajfel, H. and J. C. Turner(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ur," S. Worchel: W. G. Aust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IL: Nelson-Hall, 7-24..
- Verba, S. and N. H. Nie(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ity*. New York: Harper & Row.
- Woolcock, M.(198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 Yang, K. and K. Callahan(2007), "Citizen Involvement Efforts and Bureaucratic Responsiveness: Participatory Values, Stakeholder Pressures, and Administrative Practica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2), .249-264.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erprises*

Oh, Jong-chul**

Abstr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increased, Korea is preparing to enter a multicultural count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a social integration model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social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local social capital for social integration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increasing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ety.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on the formation of local social capital,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intention, focusing on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elected as samples, and responses to local social capital, subjective quality of life, social participation intention and social identity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A total of 363 valid questionnaires were tes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first, human social capital and corporate social capital of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orporate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f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et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ety. Finally, it was found that social identity plays a partly controlling role when community capital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ffects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ety. Through this analysis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lay a meaningful role as basic data for policy proposals for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 Local Social Capital, Human Social capital, Corporate Social Capital, Community Social Capital, Subjective Quality of Life, Social Participation Intention, Social Identi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01026618)

**First Author, An Associate Professor of Management at Ansan University, drpeter@ansan.ac.kr

주 저 자 소 개

- 오 종 철(Oh, Jong-chul)
-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기업경영학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담당교과목은 마케팅원론, 마케팅조사론, 경영정보시스템 등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인터넷마케팅, BPR, 기술수용 분야이며 이밖에도 윤리적소비, 사회적기업, 사회통합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분야> : 인터넷 마케팅, CRM, ERP, SCM 등

